



조경환

호랑이 날개 달았나?

“어, 왜 이리 잘하는 거야” KIA 타이거즈의 후반기 질주가 무섭다. 전반기 한때 ‘물방망이’라는 비아냥거림마저 들었던 타선은 어느새 불방망이로 바뀌었다. KIA는 2일 현재 후반기 7경기에서 평균 4점대의 득점력으로 5승 2패의 좋은 성적을 일궈냈다. 팀 전력은 부진했던 전반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팀의 주축인 ‘고참’ 이종범-심재학이 각각 부진과 부상으로 2군을 전전하고 있고 ‘주포’ 홍세완도 정상 컨디션은 아니다. 퇴출된 용병 서브넥 대신 들어온 스카트 역시 10경기에 출전, 38타수 5안타 타율 0.132로 KIA의 최근 전력 상승세와는 ‘파로 국밥’이다.

그렇다면 후반기 쾌속질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 중심에는 단연 ‘이적생’ 조경환(35)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6월 SK에서 웨이버 공시(방출)돼 야구 인생을 끝마칠 위기에 몰렸던 그는 7월 5일 ‘KIA호’로 갈아탄 뒤 ‘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변신했다.

KIA, 후반기 5승 2패 질주 전병두·‘이적생’ 조경환 등 투·타 맹활약...상승세 주도

조경환은 KIA 이적 후 12경기에서 3할대 타율(0.306)에 2홈런 5타점을 기록하며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KIA는 최근 9번 조경환을 6번에 포진시켜 타선의 균형을 잡아냈고 연쇄 효과로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이용규-장성호-이재주도 이어지는 중심타선도 ‘동반 상승’ 중이다.

이날 현재 안타부른 2위(94개)와 도루 2위(20개), 타율 3위(0.320)에 오른 이용규는 최근 5경기에서 14타수 6안타, 도루 4개로 잘 치고 잘 달리고 있다. 시즌 초반 2할대를 헤매다 3할대로 올라선 장성호도 최근 5경기서 18타수 8안타 타율 0.444로 최절정의 타격감을 뽐내고 있고 이재주도 17타수 5안타(0.

294)로 컨디션을 되찾는 모습이다. 타선에 조경환이 있다면 마운드는 ‘용병’ 그레이 싱어와 ‘마무리’ 윤석민이 든든하다. 그레이는 지난달 5일 두산전 7이닝 1실점 승리를 시작으로 12일 LG전 7이닝 1실점, 25일 6.2이닝 무실점, 30일 8이닝 1실점으로 최근 4연승째를 달리고 있다. 마무리 윤석민도 후반기 들어 4연속 세이브를 올리며 뒷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토종 에이스’ 김진우도 두달여의 부상을 딛고 지난 2일 두산전 선발로 나서 7이닝 3안타 2실점으로 팀의 4-3 승리를 이끌며 부활의 축포를 쏘아올렸다. 여기에 ‘피터팬’ 한기주와 ‘좌완특급’ 전병두의 선발 활약도 마운드의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KIA 서정환 감독은 “복덩이가 들어왔다. (조)경환이가 최소 3~4경기를 이겨줬고 덕분에 중심타선도 살아나고 있다. 마운드도 김진우의 합류로 큰 힘을 얻은만큼 KIA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일만 남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병두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파워 넘치는 점영 마이클 펠프스가 3일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열린 미국 여름수영대회 남자200m 점영에서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유형 100m 세계신 독일 슈테펜 53초 30

유럽수영선수권

브리타 슈테펜(22·독일·사진)이 여자 자유형 100m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슈테펜은 3일(이하 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53초30으로 물살을 갈라 지난 1월 멜버른에서 리스베스 렌튼(호주)이 세운 종전 기록(53초42)을 0.12초 앞당기며 우승했다. 슈테펜은 자신이 갖고 있던 독일 기록(54초29)도 1초 가량 앞당겼다. 슈테펜의 이날 세계기록 달성은 어느 정도 예상돼 있었다. 슈테펜은 지난 1일 열린 대회 여자 자유형 400m 계영 결승에서 세번째 영자로 나서 100m를 52.66초에 끊기도 했다. 슈테펜은 당시 활약으로 팀 우승 뿐만 아니라 세계신기록(3분35초22) 달성까지 이끌었다.

종전 기록은 호주팀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세운 3분35초94였다. 한편 여자 자유형 100m 한국기록은 유은지(서울대)가 2004년 동아수영대회에서 세운 55초46이며 여자 자유형 400m 계영 한국기록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작성된 3분44초81이다.



4일(금)
▲메이저리그<디트로이트-탬파베이>(08:05·Xports)
▲대통령기 중화야구 결승전(13:00·KBS SKY SPORTS)
▲2006 서울 국제 여자비치발라볼 대회(14:00·SBS스포츠)
▲KBS배 전국레슬링선수권(14:10·KBS1)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요코하마>(17:50·SBS스포츠)
▲프로야구<삼성-한화>(18:00·KBS SKY SPORTS), <SK-롯데>(18:30·MBC ESPN)
5일(토)
▲PGA 투어 뷰익 오픈 2R(05:00·SBS 스포츠)

도쿄돔 홈런 많이 나오는 이유

“요미우리 공인구 반발력 좋아”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지난 2일 한신전에서 역대 결승 2점 홈런을 작렬하면서 드디어 도쿄돔에서 홈런 20방을 채웠다. 올 시즌 34발 중 59%인 20방을 도쿄돔에서 적중시킨 셈이다. 홈에서 홈런을 많이 친다는 건 그만큼 팬에게 값진 볼거리를 안겨줬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도쿄돔에서는 홈런이 많이 나온다. 이승엽이 요미우리를 새 동지로 선택했을 때 이런 이유도 있었다. 지난 2년 야구장에 인접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밀려 지바 마린스타디움에서 홈런성 타구를 치고도 번번이 플라이에 그쳤던 이승엽이 홈런을 늘리기 위해 도쿄돔을 선택했다는 얘기였다. 도쿄돔에서 홈런이 많은 까닭에 대해 이승엽은 “일단 요미우리가 공인구로 사용하는 미즈노 공이 잘 나간다”고 밝혔다. 공의 반발력이 좋아 홈런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다.

요미우리 관계자는 “다 아는 대로 돔구장이라 바람이 없고 당연히 습도가 낮기 때문에 홈런이 많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는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홈구장 쿼어스필드의 악명을 떨치기 위해 공의 습도가 50% 정도 유지 되도록 특별히 습도 조절장치에 보관해오고 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 호치’의 요미우리 담당 베테랑 기자인 시미즈 유타카(清水豊)는 도쿄돔의 특수한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다. 도쿄돔의 홈에서 좌우 펜스까지의 거리는 100m, 가운데 펜스는 122m다. 같은 돔구장이자 나고야돔, 삿포로돔, 인보이스 세이부돔, 후쿠오카돔과 크기는 똑같다. 펜스 높이는 대부분이 4m인 반면 후쿠오카돔은 5.7m로 가장 높다. 이승엽은 그 탓인지 “후쿠오카돔이 가장 홈런 때리기가 어렵다”고 실토한 바 있다.

이승엽 400호 볼·배트 KBO에 기증기로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자신의 기념비적인 한일통산 400호 홈런볼과 당시 홈런을 때렸던 배트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기증하기로 했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닛폰’은 3일 인터넷판에서 이승엽이 홈런볼과 배트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한 뒤 한국팬에게는 영원한 보물이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승엽은 지난 1일 한신전에서 1회 대망의 400홈런을 작성했다. 당시 좌측 스탠드를 점령하고 있던 한신 응원단은 이 공을 곧바로 그라운드에 던져줬고 한신의 좌익수 가네모토 도모아키가 이를 주위 이승엽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현 7승

80이닝 1실점...방어율 4.57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80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하고 시즌 7승에 성공했다. 김병현은 3일(한국시간) 콜로라도주 덴버 쿼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밀워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80이닝 동안 안타 7개를 맞았지만 삼진 5개를 슈아내는 위력투를 과시하며 상대 타선을 1실점으로 봉쇄한 뒤 8-1로 앞선 8회 타석에서 호트헤 피에드라로 교체됐다. 콜로라도는 8-2로 승리, 김병현은 시즌 7승(6패)째를 안았다.

평균자책점은 4.87에서 4.57로 좋아졌다. 밀워키전 통산 첫 선발 등판에서 첫 승(무패)을 신고한 김병현은 이날 상대 일본인 선발투수 오카 도모카즈와 한일 선발 맞대결에서도 완승했다. 지난달 29일 샌디에이고전에서 기록한 한 경기 최다 이닝(7.2이닝)을 또 다시 갈아치운 김병현은 이날 생애 첫 완투승도 노려볼 만 했지만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어렵게 강판됐다. 대신 2경기 연속 7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선발 투수 120% 이상 해냈고 2연승을 달성한 데 만족했다. 이날 투구수는 106개, 스트라이크는 77개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